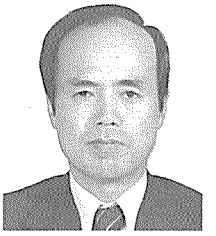
# 프로그래밍과 와이어링

컴퓨터의 母體라 할 수 있는 펀치카드시스템(Punch Card System)이 우리나라에 도입 사용되기는 '67년도 IBM 1401 시스템이 나타나기 이전인 '61년이었으니 퍽 오래된 때의 일이다.

自由黨 시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주택·농업에 관한 센서스(國勢調査)를 실시하려했다. 그런데 센서스 실시 다음 集計를 종래와 같은 手作業에 의해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즉 集計手段이라고는 주판뿐이었으므로 주판有段者를 수백명 동원한다 하더라도 수백만에 달하는 國勢資料를 처리하기란 엄두도 못낼 때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美國의 도움으로 기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PCS다.

당시 우리나라 뿐 아니라 美·日에서도 事務機械化를 위한 유일한 도구로 PCS가 각광을 받고있는 때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도입키로 하고 요원선발에 나섰다. 여자 2명을 포함한 20여명이 日本 IBM에 연수차 渡日한것이 '60년 12월하순이었다. 韓國의 공무원으로서 더우기 소프트웨어 부문에 정부요원이 해외연수에 나선것은 아마도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PCS라 하면 키펀치를 포함해서 分類機·集計機·會計機를 주축으로한 부속 기기들로 구성되는데 당시 우리 일행



**최부일**
前 한국중공업 MIS 실장

의 연수내용은 지금 생각해 보니 이들 PCS의 이용기술 즉 소프트웨어 부문이었다.

센서스결과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준비로는 우리 일행은 프로그래머 요원으로서 PCS와 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言語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다. PCS에는 각 기기별로 전용 패널이 있어 요원들은 프로그램을 지금과는 달리 이 패널에 와이어로 配線(wiring)하는 작업을 해야만했다. 따라서 당시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 대신에 와이어링(wiring)이라는 말을 썼다. PCS는 기기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패널은 물론 코딩시트(Coding Sheet)도 다르며 와이어도 긴것이 있는가하면 짧은 것이 있어 요원들은 어떤 아웃-풋(out put)을 내기 위하여 그 기기에 맞는 전용패널에 뚫려있는 무수한 구멍의 기능을 이해하며 구멍과 구멍을 연결하는 配線作業, 즉 와이어링을 해야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날 새는 줄도 모르고 골몰했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다.